

유엔 아카데미 임팩트 대학생 국제개발 논문경시대회

입력 : 2014-08-26 15:41:29 | 수정 : 2014-08-26 15:41:29

   -  

4개국 7개 대학 8개팀 16명의 대학생들이 논문 발표

유엔 아카데미 임팩트 한국협의회가 다가올 새로운 세계를 이끌어갈 전 세계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논문 경시대회를 개최한다.

26일 한동대학교에 따르면 유엔 아카데미임팩트 한국협의회는 유엔 아카데미임팩트, 외교부, 유엔 글로벌 콤팩트와 함께 오는 28일 '제2회 유엔 아카데미 임팩트 대학생 국제개발 논문경시대회 및 국제개발 컨퍼런스'를 서울 63컨벤션센터 그랜드 볼룸에서 개최한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직접 참석했던 지난 제1회 논문경시대회에 이어 올해에도 장래가 촉망되고 국제개발에 열정을 가진 젊은 학생들의 창의적이고 통찰력 있는 논문 발표와 정부 및 비정부기구 소속의 인사가 펼치는 국제개발 특강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대회 주제인 '새천년개발목표(MDGs) 이후 새로운 개발목표에 대한 전망과 고등교육기관의 참여'이다. 우리의 미래를 위해 서로의 생각을 공유하고 창의적인 해결 방법을 모색하는 실제 사례연구 발표와 정책 제안 등이 있을 예정이다. 개회식에는 김영길 유엔 아카데미임팩트 한국협의회 공동회장의 환영사,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축하 영상 메시지, 장순홍 한동대 총장의 축하 영상 메시지, 라무 다모 다란 유엔 공보부 아웃리치국 국장의 축하, 도요시 사토 일본 오비린대 총장의 기조연설이 예정돼 있다.

이어 논문 발표 및 토론 시간에는 '환경 및 적정기술', '교육과 소외계층'이란 주제 아래 크게 두 세션으로 나누어 진행된다. 이번에 발표하는 대학생들의 논문은 사전에 엄격하고 공정한 심사로 선정했다. 이와함께 발표 직후에 토론이 추가되어 지난해보다 더욱 흥미진진한 시간이 마련될 예정이다.

국내에서는 경희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한동대학교, 국외에서는 일본의 오비린대학교, 레이타쿠대학교, 카자흐스탄의 알-파라비 카작국립대학교, 루마니아의 오비디우스대학교에서 참가한다. 이후에는 정부기관 및 NGO에서 준비한 특강이 이어져 전문가의 눈으로 바라본 국제개발을 조망할 예정이다.

폐회식에서는 이날 발표한 논문을 심사해 우수한 논문들에 대해 대상 1팀, 최우수상 2팀, 장려상 1팀을 선정하여 시상하고 학생들을 격려한다. 수상팀에게는 각각 상장과 소정의 상금이 수여된다. 유엔 아카데미 임팩트 한국협의회는 2010년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창립한 유엔 아카데미 임팩트(UNAI)의 한국 협의체이다. 유엔 아카데미 임팩트의 비전을 한국에서 실현할 수 있도록 도우며, 더 나아가서 한국 대학 및 단체가 더욱 주도적으로 국제개발에 대한 능동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유엔 아카데미 임팩트는 세계의 대학 등 고등교육기관들이 유엔의 새천년개발목표 달성에 동참하고 기여하려는 취지로 창립되었으며, 현재 한국의 57개 대학을 포함해 전 세계 950여개의 대학

및 교육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유엔 아카데미 임팩트 한국협의회 김영길 공동회장은 “이번 논문경시대회가 대학생들의 글로벌 현안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이해를 더하는 장이 되리라 생각한다”며 “우리 모두가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함께 짊어질 때 국제사회는 발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포항=장영태 기자 3678jyt@segye.com